



<변역된 도자기_2016 TVWG 1> (상세), 2016
도자기 파편, 에폭시, 24K 금박, 175x125x110cm
사진: 광공신 ©Yeesookyung

이 수 경

1963년 서울 출생 / 서울 기반 작업

웹사이트: www.yeesookyung.com

이수경은 풍부한 서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설치 미술, 조각, 퍼포먼스, 비디오 아트, 회화, 드로잉 등 다양한 분야로 작업의 스펙트럼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 그녀는 과거와 현재, 생명과 죽음, 현실과 비현실, 세속적이거나 성스러운 것, 개인과 타인, 사회와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탐구하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쳐 왔다. 또한 이수경은 고대 신화와 이야기에서 얻은 영감과 자신의 경험을 연관지으며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이루어 내고 있다.

이수경은 여러 차례의 개인전 《이수경: 이동식 사원》(세르누치 미술관, 파리, 2023), 《달빛 왕관》(아트선재센터, 서울, 2021), 《먼길 이야기》(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21), 《Whisper Only to You》(카포디몬테 미술관, 나폴리, 2019), 《믿음의 번식》(아뜰리에 에르메스, 서울, 2015), 《내가 너였을 때》(타이페이 현대 미술관, 타이페이, 2015) 등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또한 이수경은 큐레이터 크리스틴 마셀(Christine Macel)이 기획한 《The 57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La Biennale di Venezia: Viva Arte Viva》(2017)에 초대되었다.

이수경의 작품은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보스턴 미술관, 시카고 미술관, 영국 런던의 영국박물관, 브리스톨 박물관, 홍콩 M+ 미술관, 스페인 ARCO 컬렉션,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국립 예술관, UAE 아부다비 살라마 빈트 함단 알 나흐얀 재단에 소장되어 있다.

작품 소개

<번역된 도자기> (2001-현재 진행 중)

<번역된 도자기>는 버려진 도자기 파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한국의 도자 장인들은 한국 전통 도자기를 재현하면서 작품의 희소성과 최고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완성된 도자기에서 작은 결점이라도 발견되면 그 도자기를 파기해버린다. 그렇게 생겨난 부서진 도자기 파편들을 나는 입체 퍼즐 조각처럼 맞추어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 파편들 사이의 틈을 금으로 덮었다. 나는 도자기가 부서진 순간부터 작품에 개입하게 되며, 도자기는 나의 번역과 해석에 의해서 새로운 이야기와 의미를 담은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번역된 도자기: 이상한 나라의 아홉 용>, 2017
도자기 파편,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기둥, 에폭시, 24K 금박
492(h)x200x190cm
2017년 이탈리아 57회 베니스 비엔날레, VIVA ARTE VIVA 전시 전경



<번역된 도자기_천_2012>, 2012
도자기 파편, 24K 금박
2012년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쌍둥이 성좌》 전시 전경
© 국립현대미술관



<번역된 도자기_2012 TVW 달 1>, 2012
 도자기 파편, 에폭시, 24K 금박
 155x155x155cm
 한국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좌측) <번역된 도자기_2007 TVW 11>, 2007, 도자기 파편, 에폭시, 24K 금박, 160x90x90cm
 한국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우측) <번역된 도자기_2007 TVW 10>, 2007, 도자기 파편, 에폭시, 24K 금박, 122x84x81cm
 캔사스 대학교 스펜서 미술관, 로렌스, 미국 소장
 © 독일 데사우 오라니엔바움 미술관



<번역된 도자기_달의 이면_2014 TVB 2>, 2014
 북한 도자기 파편, 에폭시, 24K 금박
 138x143x141cm
 한국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 삼성미술관 리움



상세

<달빛 왕관> (2019-현재 진행중)

<달빛 왕관>시리즈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절대로 머리에는 쓸 수 없는, 왕관 자체가 몸이 되어버린 작업이다. 이 시리즈는 절대 권력의 상징인 빛나는 왕관의 의미는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달빛 왕관>은 백제 금동 대향로의 아름다움에서 형태적인 영향을 받았다. 당시의 유물들을 연구하면서 실크로드와 실크로드 중 가장 먼저 생긴 교역길인 초원길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교류했던 고대 한반도 시공간의 역동성과 활력을 자주 상상하였다. 그 시간들이 <달빛 왕관> 시리즈에 스며들어 있다.



2021년 한국 아트선재센터 《달빛 왕관》 전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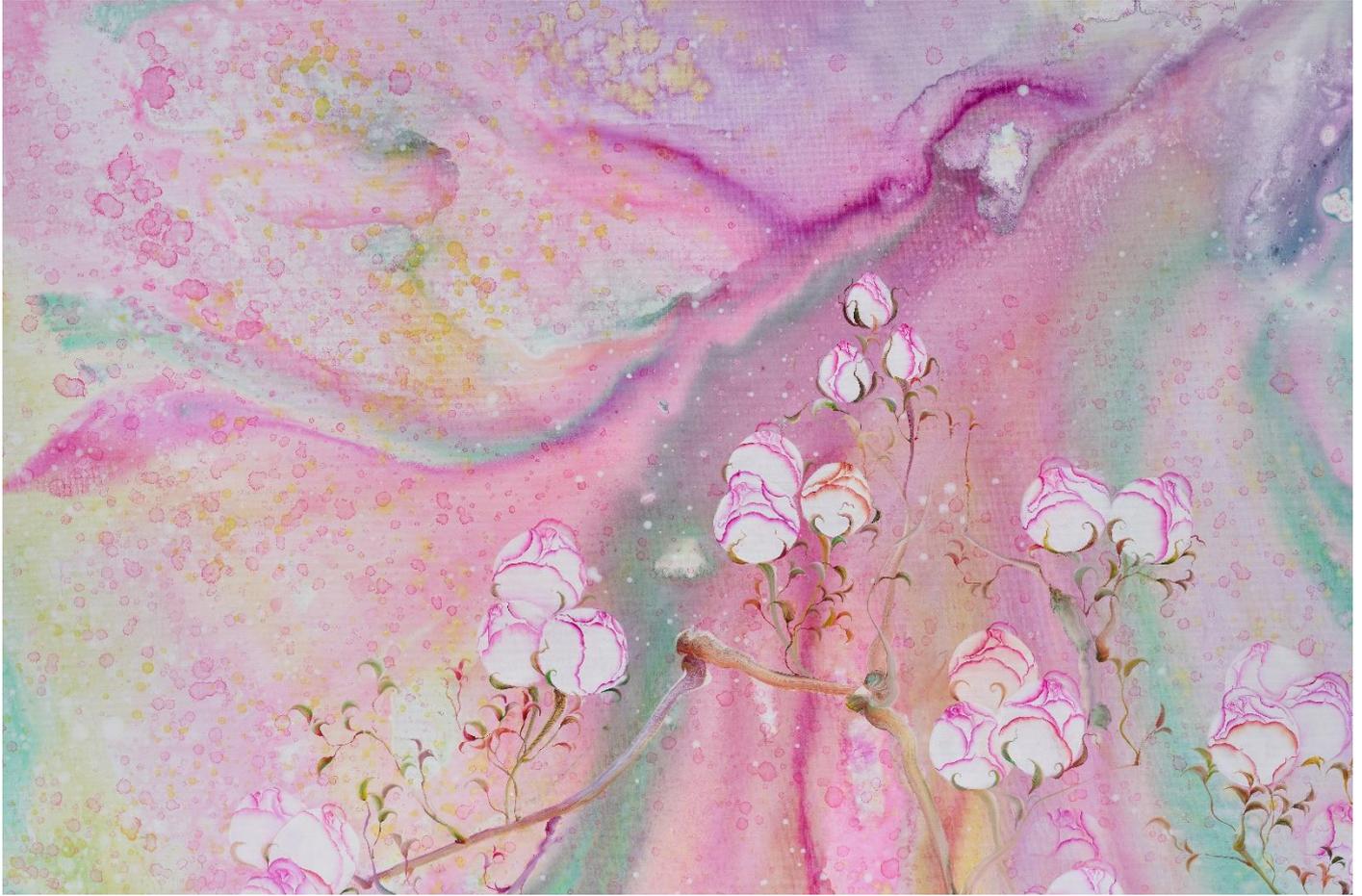
<달빛 왕관_다정한 자매들_동쪽 산꼭대기>, 2021
황동, 에폭시, 철, 레진, 114x73x7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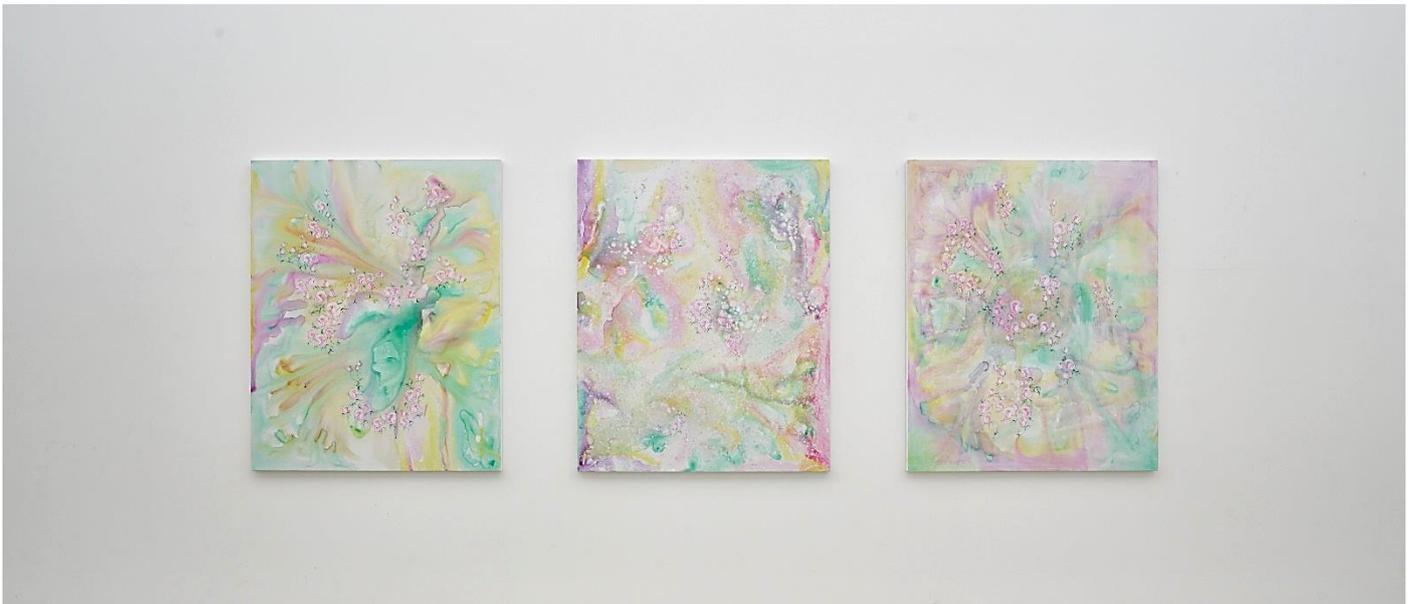
상세

<오, 장미여!> (2022-현재 진행 중)

장미는 나의 전생 경험과의 역행적 연결을 통해서 매력적인 주제로 작품에 등장한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사랑과 아름다움의 상징인 장미가 표현된 <오, 장미여!> 시리즈는 매번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특별한 여행에서 마주한 전생과 이생의 경계의 모습이다.



<오, 장미여!_벚꽃은 5월에 피었습니다>, 2024, 캔버스에 아크릴, 162x130cm (상세)



2022년 한국 더페이지갤러리 《이수경: 이상한 나라의 아홉 용》 전시 전경

<불꽃> (2005-현재 진행 중)

<불꽃>은 한국, 일본, 중국에서 부적이나 불화를 그릴 때 주로 쓰던 경면주사를 이용해 한지 위에 그린 작품이다. 불교의 스님들이 깨달음에 도달할 때까지 한 가지 화두에 집중하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불꽃이란 무엇일까?” 라는 하나의 질문만을 끊임없이 해가며 작품을 그려냈다. <불꽃>을 제작하는 동안 자주 붓이 자동으로 움직여, 마치 붓이 스스로 그린 듯한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생성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좌) <불씨 2021-1>, 2021, 나무 패널에 경면주사, 100x100cm
(우) <불꽃 2006-23>, 2006, 한지에 경면주사, 100x100cm



<불꽃 2009-3>, 2009, 한지에 경면주사, 196x260cm (상세)

<불꽃 변주>(2012-현재 진행 중)

<불꽃 변주>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그렸던 <불꽃 드로잉>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한 후 그 이미지를 디지털 프로그램을 통해 거울에 비친 것처럼 좌우 대칭이 되도록 밑그림을 만들고 제작한 작품이다. 엄격한 규칙아래 제작되는 불교 탱화의 제작 방식을 이용해, 내 머리속에 떠오르던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운 천상의 이미지들을 표현하려고 한 작품이다.



(위) 2012 년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쌍둥이 성좌》 전시 전경
(아래) <불꽃 변주 1-1>, 2012, 비단에 채색, 70x120cm/ 족자 195x138cm

<그곳에 있었다 2017> (2017)

<그곳에 있었다> 프로젝트는 한국의 비무장지대(DMZ), 티베트와 중국 국경선, 시리아-터키 국경 등 분쟁 지역에서 돌을 모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돌들은 한국 전통 기법으로 불상에 금을 입히듯 금박을 입힌다.

고대에는 큰 돌이 신성하다고 여겨졌고, 돌을 중심으로 많은 의식이 이루어졌다. 신성한 돌이나 험한 절벽에 대한 이야기도 많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이러한 돌과 바위는 장애물로 여겨져 도시에서 제거되었고, 그 결과 도시들은 평평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폭격을 당하고 황폐한 모습이 된 분쟁 지역의 비극적인 장면을 담은 사진 속에서 돌과 바위는 종종 매우 뚜렷하게 보인다. 이러한 이미지들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고, 나는 항상 그런 지역의 돌과 바위에 이끌리곤 하였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돌은 움직일 수 없이 그 자리에 놓여 있다. 돌은 지구의 역사를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물질 중 하나이다. <그곳에 있었다>는 분쟁 지역에서 채집한 돌에 금박을 입혀, 그곳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그 아픔을 내면에 켜켜이 쌓아 화석처럼 남기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작품이다.



<그곳에 있었다: DMZ 프로젝트 2017>, 2017
돌, 24K 금박, 우레탄 페인트, 320x300x170cm
2017년 한국 철원군 DMZ 평화문화 광장 전시 전경



〈그곳에 있었다: 2021 리얼 DMZ 프로젝트〉, 2021
 발견된 백운석, 폴리우레탄, 금가루, 24K 금박, 가변 크기
 202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크루거즈드르프 니룩스 조각 공원 전시 전경



〈그곳에 있었다〉, 2022
 돌, 폴리우레탄, 금분, 가변 크기
 2022년 일본 카가와 현 쇼도시마섬 《세토우치 국제 예술 트리엔날레》 전시 전경

<그림자 춤> (2015)

<그림자 춤>은 전통 예술 공연가가 짧은 공연을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이다. 영상 속에서 나는 공연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와 같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영상의 장면은 2015년 타이페이 현대미술관에서 공연되었던 대만 경극으로, 배우의 머리 위에는 한 쌍의 상들리에로 이루어진 작품 <내가 너였을 때>가 설치되어 있다.

영상: <https://vimeo.com/151764474>



<그림자 춤>, 2015
싱글 채널 비디오와 사운드, 5분 46초
© 대만 타이페이 현대미술관

<전생역행그림> (2014-현재 진행 중)

나는 2014년 1월부터 한 달에 한번씩 최면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최면을 통한 전생으로의 회귀를 경험하게 되었다.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것들을 찾아 표현해보려는 이 시도를 통해, 나는 동아시아 철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고 할 수 있는 윤회와 전생에 대한 나의 경험을 생각해 보았다. 전생으로의 역행에서 내가 보고 경험한 모든 이미지와 이야기들이 다 이 그림들 속에 담겨있다.



시계 방향으로 왼쪽 위부터:

- <오 홀리 나이트> (2016), <위험한 홍수에서 살아남은 모든 이들> (2016),
- <나는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다> (2014), <두 가지 다른 가능성> (2016),
- <중간 땅에서의 결혼식> (2014), <성자, 세상의 불순물로 수정 구슬을 만드는> (2015),
- <곧 그는 깨달음을 추구할 것이다> (2015), <당신은 길을 찾을 것이다> (2014),
- <사슴 사냥꾼의 순간, 나의 아기 사슴과 내가 꿈으로 다시 태어나다> (2014)

<매일 드로잉> (2004-현재 진행 중)

2004년에 나는 하루에 원 하나씩을 그리면서 정신적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만다라 미술 치료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때부터 매일 이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레고리안 성가를 들으며 제작한 2010년 작품들은 곡선의 벽으로 이루어진 타원형 공간에서 전시되었으며, 4가지 버전의 성모 애상곡(스타마트 마테르: Stabat Mater, 슬픔의 성모)이 4개의 스피커를 통해 동시에 흘러나오는 가운데 총 176점의 드로잉이 전시되었다.



<매일 드로잉 100223>, 2010
종이에 색연필, 30x30cm



2010 년 한국 아르코미술관 《정마리의 정가: 이수경의 헌신》 전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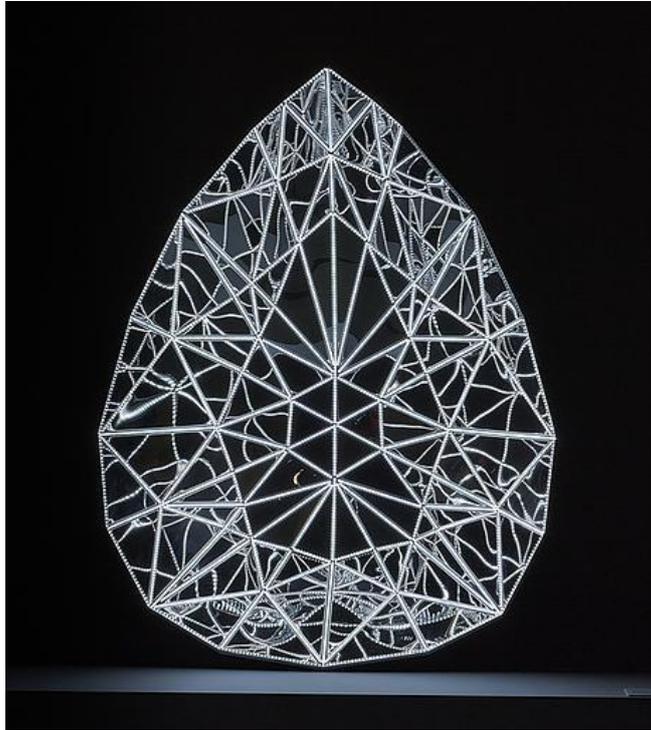
<매일 드로잉 101023>, 2010,
종이에 색연필, 30x30cm



<매일 드로잉 101118>, 2010,
종이에 색연필, 30x30cm

<눈물> (2012)

<눈물>은 2012년 덕수궁에서 첫 선을 보인 이 작품은 거울과 흡사한 표면을 가진 스테인레스와 LED 전구로 제작되었다. 각이 진 오목한 형태로 인해, LED 불빛은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스테인레스 조각들의 표면에 무한대로 반사된다. 이 작품은 왕이었던 의붓아들에게 덕수궁 석어당에 감금당했던 인목대비를 위한 나의 헌정작이다.



<눈물>, 2012

LED, 스테인레스 스틸, 170x110x60cm

<모두 잠든: 바리 공주, 서왕모, 타라> (2015-현재 진행 중)

<모두 잠든>시리즈는 3D 모델링과 3D 프린팅을 이용해, 작품에서 짝을 이룬 여신들이 마치 거울에 반사된 모습처럼 서로 대칭을 이루도록 제작되었다. 이 작품의 주인공들인 바리 공주와 서왕모, 타라는 동양의 전통 설화에 등장하는 여신들로, 이들은 잠든 동안 자신들이 잃어온 짐들로부터 벗어난 모습을 하고 있다. 바리 공주는 한국 무당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인물로 관북 지방의 설화에 등장하는 여신이다. 서왕모는 중국의 서쪽 끝에 위치한 쿤룬산에 살면서 죽은이들을 관장하는 생명의 여신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과 불멸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타라는 자비의 여신이 흘린 눈물에서 태어난 여신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이름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록타라와 평범한 이들의 수명 연장을 관리하는 백타라 등이 있다.



(위) <모두 잠든: 바리 공주>, 2015, 3D 프린트, 각 20x50x21cm,

(아래) <모두 잠든: 시황무>, 2015, 3D 프린트, 각 22x50x26cm

©에르메스 재단

2015년 대구미술관 《내가 너였을 때》 전시 전경 (<모두 잠든: 시황무> 상세)

<노래> (2010, 2012)

내가 공연 감독과 무대 디자인을 담당한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음악인 가곡을 최대한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무대를 디자인했고, 가곡의 섬세함을 강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공연에 연주되는 전통악기 반주를 배제한 채 오직 여성 공연자의 목소리만으로 구성된 공연을 기획했다. 전자 음향 기기 없이 최상의 음향을 전달하기 위해 앞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의 무대가 설계되었다.

전시 영상: <https://vimeo.com/31987004>



<노래-우리의 시도가 지연되는 동안>, 2010
무대 디자인 및 퍼포먼스 디렉팅: 이수경, 프로듀서: 김인선(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퍼포먼스: 정마리, 무대 도면: 김영진, 영상 편집: 김준하, 의상: 이수경

<쌍둥이 춤> (2012)

<쌍둥이 춤>은 퍼포먼스 작품으로, 백색의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영상 작품으로도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두 명의 무용수가 등장해 한국 전통 무용의 동작들을 마치 거울에 반사된 이미지처럼 대칭으로 선보이면서 진행된다. 전통속에 존재하는 묘한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무용수는 한국의 전통 기념품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형처럼 보이도록 분장을 한 채로 공연에 임한다.

영상: <https://vimeo.com/151764725>



<쌍둥이 춤>, 2012

싱글 채널 비디오와 사운드, 11 분 52 초

퍼포먼스 및 비디오 디렉팅: 이수경, 퍼포먼스: 이정화, 정송이, 음악: 장영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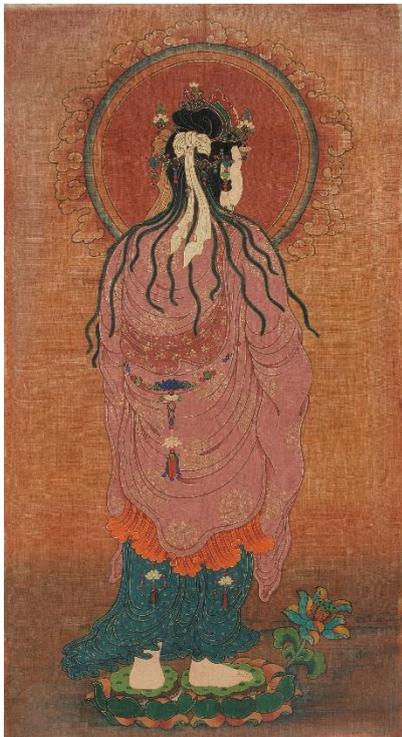
의상: 김영석, 메이크업: 소인경, 카메라 및 영상 편집: 차은택

<이동식 사원> (2008-현재 진행 중)

<이동식 사원>은 불교의 전통 탕화 제작 기법을 사용하여 현존하는 탕화 속 부처와 보살의 뒷모습을 상상해 그린 병풍으로, 이 병풍을 두르면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난다.



<이동식 사원 2010>, 2010
비단에 석채, 각 160x74cm



(상세)